

광주서 만나는 요코하마 문화심장

광주시립미술관 6일~내달 3일 요코하마 뱅크아트 소개 '도시에 서식하다'展

항구 창고, 도시 대표 문화공간 자리
성장 과정·활동 5개 장면 나눠 전시
'화음' 챔버오케스트라 기념 공연도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요코하마시는 1859년 7월1일 서양 국가와 통상조약을 맺고 개항을 한다. 일본 최초 서양식 공원, 우유 가게, 이발소, 아이스크림 가게, 맥주 공장 등이 생기며 동서양 문화가 혼합된 근대도시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150여년이 지난 현재,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의 진정한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이에 지난 2004년부터 '뱅크아트1929'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답을 찾기 시작한다. '뱅크아트1929'라는 이름은 1929년에 설립된 옛 은행 건물을 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유래했다. 은행이나 창고 등 도시 곳곳에 버려진 건물을 이용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금은 요코하마항 인근의 우편선 창고를 개조한 '뱅크아트 스튜디오'를 본거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곳은 전시·공연장 뿐 아니라 카페, 도서관, 펍(Pub) 등도 자리잡아 요코하마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꼽힌다.

문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요코하마의 '뱅크아트1929'를 소개하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과 일본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



도쿄 요코하마시 '뱅크아트1929'

(대표 이케다 오사무)가 공동으로 '도시에 서식하다'전을 6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술관 본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뱅크아트1929'가 요코하마 창의도시의 상징이 된 이유와 활동사항을 5개의 장면으로 나눠 보여준다. 첫째 장면은 실제 '뱅크아트1929'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안내 데스크, 카페, 뱅크아트 스쿨 등을 재현했다. 마츠모토 아키노리의 대나무 작품을 설치하고 그동안 발행했던 출판물 120여종을 전시한

다. 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사들의 인물사진 300점도 선보인다.

둘째 장면은 '뱅크아트1929'가 개최됐었던 주요 기획전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준다.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영상작가 다카하시 케이스케가 광주로 와서 직접 대형 영상작품을 설치했다. 흰 벽면으로 구성된 영상실에서 4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 전시화와 이벤트, 프레젠테이션 등을 볼 수 있다.

셋째 장면에서는 뱅크아트1929의 대표 프로그램인 '도시로의 개입'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넷째 장면은 뱅크아트가 한·일 교류와 네트워크를 위해 진행했던 '속(續)·조선통신사'를 소개하는 영상, 사진, 아카이브, 향후 계획 등을 선보인다.

마지막인 다섯째 장면은 '미래우체국'으로서 카이하츠 요시아키 작가가 '미래 우체국~한국편'을 출품했다. 관람객들이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다.

한편 이번 전시를 기념해 개막식(6일 오후 4시30분)에서 (사)화음(대표 박상연)이 '속(續) 조선통신사'를 바탕으로 작곡된 화음프로젝트를 공연한다. 임지선씨가 작곡하고, 국내정상급 연주자인 이보연(바이올린), 박현(바이올린), 에르만 리사(비올라), 김연진(첼로), 조용우(더블베이스), 윤민규(오보에), 김효영(생황)이 박 대표의 지휘로 연주한다.

화음 프로젝트는 음악인들이 미술의 주제나 이미지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현대음악을 만들어 미술관에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62-613-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개막 음악회 연주자 에르만 리사



일본 요코하마시 '뱅크아트 1929'의 본거지로 이용되는 '뱅크아트 스튜디오'에 위치한 펍을 일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안갤러리 5~15일 '가을엔 수채화, 3인3색'展

주안갤러리가 가을을 맞아 '가을엔 수채화, 3인3색'전을 5일부터 15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김수옥, 염순영, 오경민 등 3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약 23점을 선보인다.

김수옥 작가는 화폭 가득 초록빛이 도는 작품으로 마음에 휴식을 준다. 수백 수천장의 클로버잎에 둘러싸인 하얀꽃들은 일상의 소소함을 그리고 있다.

염순영 작가의 '너도 그렇다'는 들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잎이 등장한다. 염 작가는 형형색색 꽃을

통해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

오경민 작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작품 'Open up your mind'는 짙은 분홍빛 꽃들이 캔버스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중앙부는 점점 밝아지고 있다.

한편 주안갤러리는 5일 오후 7시 오프닝으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첼리스트 이대호와 색소폰연주자 김지민이 바흐 무반주 첼로곡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223-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수옥 작 '세잎 클로버'

의재미술관 '한·중 수묵 교류전'

5~22일...양국 작품 44점

의재미술관이 5일부터 22일까지 제 12회 한·중 수묵 교류전 '휘호낙지여운연(揮毫落紙如雲煙)-붓끝에 이는 조화'전을 개최한다.

한·중 수묵 교류전은 동양적 세계관을 오랫동안 공유해온 한국과 중국의 수묵 흐름을 비교해 보기 위해 중국 심천 시립 관산월미술관과 의재미술관이 해마다 번갈아 주최하는 전시다.

올해는 김대원, 설박, 김천일 등 한국작가의 작품 19점과 광 성타오, 류 쓰둥, 천 상보 등 중국작가 25점 등 총 44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주제 '휘호낙지여운연'은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712~770)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서 따온 것이다. 두보는 당대 초서(草書) 명인 장욱에 대해 '휘호낙지여운연(휘두르는 붓이 종이에 닿으니 구름에 연기 오르듯 한다네)'라고 표현했다. 어느 경지에 다다라 붓으로 조화를 부리는 수준을 뜻한다.

김대원 작가의 '육연정사'나 설박의 '어떤 풍경' 등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자



광 성타오 작 '石湖烟云'

신의 대표작들을 선보이며 붓으로 조화를 부리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문의 062-222-30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모 품서 관람하는 젓먹이 아이들의 첫 연극



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10~29일 연극 베이비드라마 '달' 무대

젓먹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관람하는 특별한 연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영·유아(0세~36개월 미만)를 위한 연극 베이비드라마 '달'을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어린이극장에서 상연한다. 문화전당측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관람하는 생애 첫 연극'이라고 소개하는 추천작이다.

지난 9월 문화전당 개관 때 선보여 주목받았던 이 작품은 '베이비드라마'로 만화캐릭터를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이다. 3세 미만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놓았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지능력을 발달

시킬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창작극이다. 공연시간도 영유아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30분이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발견한 아기가 달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엄마 품을 떠나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리와 동작, 이미지, 의상, 무대, 음악, 언어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관객인 영·유아와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작품이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보호자와 아이 2명 기준). 공연예매 방법은 문화전당 누리집(http://www.acc.go.kr)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1899-556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헤드립니다!

밀착토크 **꿈을 담은 캔버스** Show

MC 신현준 MC 홍진영

매주 월요일 밤 11시

<p>CHANEL</p>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